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

□ 기념식 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목) 10:00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념사(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별도 배포

□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이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하였습니다.

-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하였으며,

-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현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 붙임

□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 봉사단(단장: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라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법의 날’ 유래

□ 1964년 : 대통령령(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2003년 : 법의 날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담당 부서	인권국	책임자	과 장	박진열 (02-2110-3673)
	인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진섭 (02-2110-3293)

제61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공적요지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이임성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범죄예방 및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
황조근정 훈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홍승욱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수사 등 민생 침해 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음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박준희	1991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위원을 시작으로 2004년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부산교도소 홍보대사, 부산 소년원, 부산소년분류심사원 등 부산 5개 교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에 기여함
홍조근정 훈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강종현	일반 형사범에 대하여 최초로 범죄단체로 처벌 후 사례를 전파해 국가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 청구,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경기남부지역 마약범 구속 및 마약 상당량 압수로 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정식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 근무하면서 뇌물비리 등 반부패범죄 및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선임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전국 주요 형사부 사건 수사·공소유지 관련 업무지휘 및 지원활동 실무를 총괄하고, 전세 사기 범죄 엄정대응,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마련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공적요지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김재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임하며 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창업지원,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바가 큼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사무관	박기홍	재무담당관으로서 투철한 사법의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에 공헌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대통령 표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이석	검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특별수사분야의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고, 혁신적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총무, 사무과장 으로 행정사무 우수청 2회 등 총무, 집행, 공판, 사건 등 검찰업무 전반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안경한	2003년부터 보라미봉사활동, 멘토링데이, 불우수형자 자매 결연 등을 통해 장기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수용자의 자아 존중감을 고취 시키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함
	양육비 이행관리원	(단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법률상담, 양육비 관련 제반 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기여
국무총리 표창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이사장으로 약 15년간 활동하며, 범죄 피해자의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으며,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여함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	박동찬	탁월한 역량으로 국회 입법지원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안 심사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위원	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센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공헌 및 적극적 지원을 함 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발전에 기여함